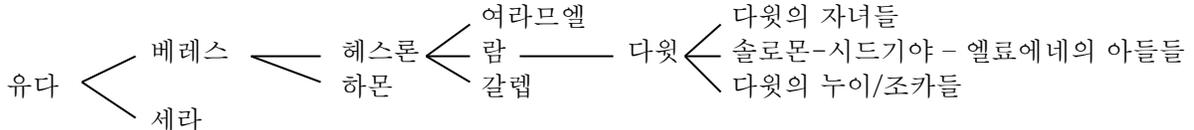


1. 이스라엘의 족보: 뿌리(1-3 장), 가지(4-7 장), 열매(8-9 장)
2. 왜 뿌리가 필요한가?(1-3 장)

- a.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
 - i. 바벨론 유수 후, 12 지파 중 일부(남은 자)만 상태
 1. 땅은 찾았으나 일부만 찾았고, 다윗의 집에 있으나 그 왕국과 영광은 사라진 상태
 2. 성전은 있으나 불품이 없었고, 핏박은 있진 않지만 강대국들에게 무시 받고 사는 상태
 - ii. 비유컨대, 당시 이스라엘은 돌쫓 밭에 떨어진 나무와 같았던 것
 1. 뿌리가 없으니 물을 끌어낼 수 없었고, 가지가 말라 햇빛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된 것
 2. 또한 주위 강대국의 멸시와 압력에 눌려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
 - iii. 이때 죽어가는 가지에 생기를 넣기 위해 물을 빨아 들이는 ‘뿌리’가 있었음을 강조
- b. 당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가지들(이스라엘)을 뿌리(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)와 연결
 - i. 엘료에네의 아들들(당시 살아있는 세대) - 시드기야 - 솔로몬 - 다윗 - 유다 - 야곱 - 아담으로 연결
 - ii. 다른 성경들은 모세 - 아브라함으로 연결. 역대기는 다윗 - 야곱으로 연결. 그 이유
 1. 아브라함에게는 큰 자손을,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그 자손들을 위한 왕국건설을 약속
 2. 그러나 실제 큰 민족으로의 변성과 왕국건설의 절정과 성취는 야곱과 다윗에 의해 성취
 3. 이때 가장 풍요롭고 찬란한 왕국과 문화를 누린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것

3. 가지들: 이스라엘 12 지파의 계보(4-7 장)

- a.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가지: 유다 지파(2-4 장)



- i. 예상 밖의 복을 받은 지파(하나님의 은혜)
- ii. 보는 눈이 달랐던, 즉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(유다 땅)
- b. 시므온 지파(4:24-43)
 - i. 시므온의 번성한 후손들의 수와 살던 성읍(지역들)을 다윗 왕 때까지임을 소개(31)
 - ii. 이를 통해 다윗 이후, ‘잃어버린 가지’로 소개
 1. ‘잃어버린 가지’가 된 것은 강대국의 침략이 아닌,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
 - a. 시므온의 혈기와 잔인성(창 34:1-31, 강간 당한 여동생 디나로 인해 피의 보복감행)
 - b. 광야시절 발람의 모사로 바알브올 사건에 가담해 2/3 가 죽음(민 1:23, 25:1-26:14)
 - c. 예언대로 유다지파에 흡수되어 매우 미약한 지파로 존속(창 49:5-6, 수 19:1-9)
 2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주의 은혜로 다윗 이후에도 그 일부의 후손들이 남아 생존(43)
- c. 요단강 동편에 거한 지파들: 르우벤, 갓, 므낫세(5 장)
 - i. 두 개의 큰 사건을 소개: 번성(20,2)과 멸망(25-26)
 1. 저희들이 싸울 때에 주께 의뢰하여 간구함으로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였고 번성
 2. 그 이후, 이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죄로 앗시리아의 침략에 멸망
 - ii. 이것은 백성의 믿음은 축복을 가져오나, 죄는 고통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

- d. 레위 지파(6, 9 장) - 6 쪽에서 설명
- e. 군대 지파들: 잇사갈, 베냐민, 단(후심, 참조, 46:23)(7:1-12)
 - i. 이들 지파의 강성한 군사력을 소개: 용사(2), 큰 용사(5,11)
 - ii. 이러한 강성함은,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, 언제든지 주신다는 것
- f. 그 외 지파들: 납달리, 에브라임, 아셀(7:13-40)
 - i. 에브라임지파가 차지한 넓은 땅 소개(21)
 - ii. 가나안에 들어와 차지한 넓은 땅을 소개.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인한 것(20)
- g. 스블론 지파가 빠진 이유: 12 지파를 강조하기 위한 것

- i. 이스라엘의 12 아들들(창 35:22-26)
 1. 레아의 아들들: 르우벤, 시므온, 레위, 유다, 잇사갈, 스블론(6 명)
 2. 라헬의 아들들: 요셉, 베냐민(2 명)
 3. 빌하(라헬 종)의 아들들: 단, 납달리(2 명)
 4. 실바(레아 종)의 아들들: 갓, 아셀(2 명)

- ii. 광야에서 행진하고 진 편성에 참여한 12 지파
 1. 요셉을 대신한 두 아들(므낫세와 에브라함)은 12 지파에 들어가 13 지파가 되었으나,
 2.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써, 12 지파를 유지(민 2 장)

- iii. 땅 점령 후,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 12 구역으로 구분
 1. 땅을 분배 할 때,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1 지파만을 상속자로 선정
 2. 남은 1 구역은 므낫세 지파가 2 구역 을 가짐으로써, 12 구역 분배가 해결

- iv. 계시록(7:5-8)에서 에브라임과 단 지파를 빼고, 레위 지파와 요셉을 넣어 12 지파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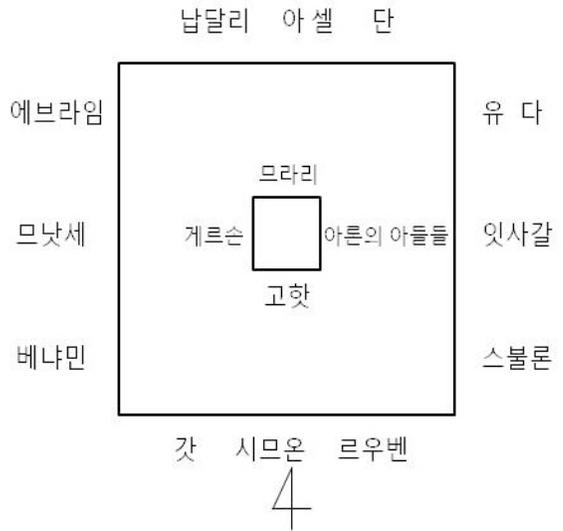
- v. 역대기 족보(대상 2:1,2)도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빼고 레위와 요셉을 넣어 12 지파 유지

4. 열매들: 왕들과 제사장들(8-9 장, 참조 출 19:6, 뵤전 2: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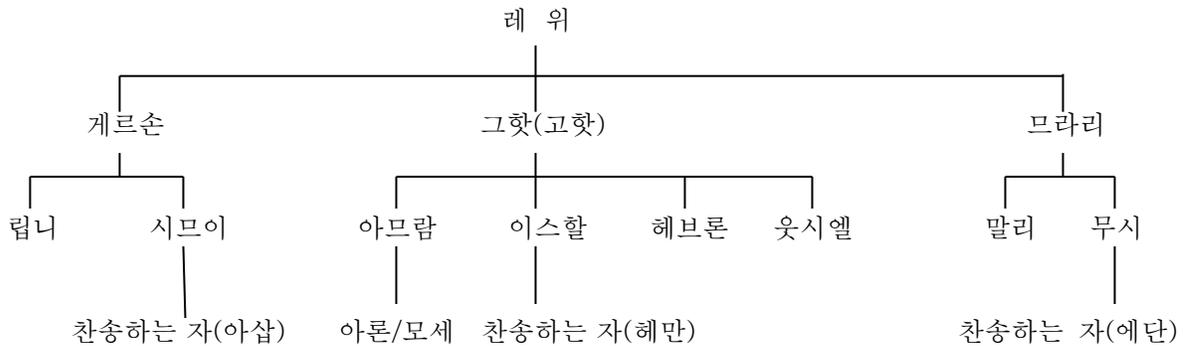
- a. 열매에 의해 그 나무를 알듯이, 이스라엘은 왕직과 제사장직에 의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는 것
 - i. 바른 예배(제사장의 직분에 의한)를 통해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와 참된 관계를 맺게 되며
 - ii. 바른 통치(왕의 신적 통치에 의한)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어 그와 참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
 - iii. 그러므로, 제사장직을 행하는 레위 지파, 왕들의 지파인 유다/베냐민 지파에 초점을 둔 것

b. 왕직의 최상인 유다 지파

- i. 2 장은 유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(유다-베레스-헤스론-람-보아스-이세-다윗)
- ii. 3 장(대상 10-29 장, 대하 1-35 장)은 다윗의 후손들을 언급
- iii. 4 장은 유다의 나머지 후손들을 언급
- iv.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족보(3:10-16)는 다윗의 나라의 지속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
 1. 왕은 죽으나, 그의 나라는 왕과 함께 죽지 않는다는 것
 2. 다윗의 왕위는 존속하지 않으나, 그의 자손들(엘료에네)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



- c. 왕직의 초기 열매인 베냐민 지파(7:6-16, 8 장)
 - i. 하나님의 통치를 처음 제시한 사울 왕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도 비중을 두어 소개
 - ii. 베냐민 지파가 버림 받게 된 이유도 아울러 소개
 - 1. 사울의 잘못된 통치로 ‘의로운 왕되신 하나님을’ 백성들에게 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
 - 2. 그 결과,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온전치 못하게 만든 이 지파를 버리셨다는 것
- d.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역사와 연속(6,9 장)
 - i. 6 장은 레위의 아들들과 제사장직 계승을 언급한 족보



* 헤만(사무엘의 손자)은 중앙에서, 아삽은 우편에서, 에단은 좌측에서 찬송을 맡은 자

- 1.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직계손에 의해 광야시대, 사사시대, 왕정시대로 이어져 존속
 - 2.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다른 모든 지파들의 온 땅에 흩어져 사역
- e. 9 장은 유수 후,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(문지기, 노래하는 자, 성전 봉사자들 등)을 소개

5. 교훈과 적용

- a. 바벨론 유수 후에도 계속 다윗의 나라와 제사장직과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
 - i. 족보는 참된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한 지파들이 있었음을 강조
 - 1.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 시대에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늘 번제를 드렸고
 - 2. 하나님의 보좌에는 왕들이 앉아 백성들을 위해 의로운 정치를 펴 나갔다는 것
 - 3. 그 결과, 다윗, 솔로몬, 히스기야, 요시야 등의 시대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것
 - ii. 그러므로, 지금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, 다윗 나라의 권능 같은 열매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,
 - 1.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유수 후의 이스라엘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
 - 2. 최소한 제사장직을 회복하여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,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자는 것
 - 3. 이를 위해 성전과 관련된 왕들의 삶과 사건들(축복과 저주, 부함과 가난함, 건강과 질병)을 소개
- b.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직과 제사장직이 완전히 회복
 - i. X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주께 드러지게 된 것
 - ii. ∴ X를 통해 우리의 삶을 ‘거룩한 산 제사’(롬 12:1)를 드러짐으로써 축복과 부함을 소유